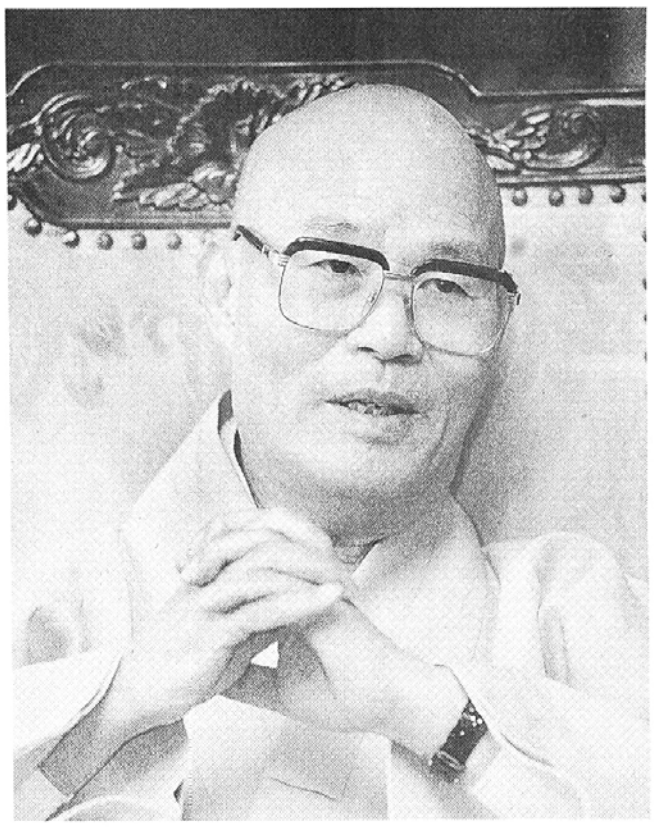
"대중교화 방편으로 가람중창"

30년 불사회향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



수요 인터뷰

30년간 직지사 중창불사를 '화두'삼아 전력해 온 주지 녹원(綠園)스님을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제2 創寺원력 실현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제2의 창사(創寺)원력을 실현시켜 오셨는데 대작불사의 회향을 앞두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산이 세번이나 변하는 시간을 오직 중창불사에 매진해 왔습니다. 퇴락한 당우를 고쳐짓고 새 집을 지어 사격(寺格)을 장엄해 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당장 눈앞에서 강산이 서너번을 바꿔놓는 듯한 감회에 젖어듭니다.

—중창불사의 의의를 짚어 본다면 사격의 장엄과 국내의 포교의 터를 다졌다는데서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지사는 개산조 아도화상 이후 고려때의 능여(能如)조사의 중창이래 수없는 중수중건이 이어져 왔으나 임진왜란 이후 쇠락의 길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일제를 거치고 나라의 여러 여건이 건실해 지면서 직지사도 옛 위용을 되찾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중창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방 사부대중의 뜻이 모아져 이제 그 장엄도량을 보게 되었으니 황악산의 새 회상에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갈 빛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원과 국제불교회관(만덕전)은 이 땅의 청정한 불심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인의 불자화를 이뤄내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람중창도 매우 중요한 대중교화의 한 방편임을 알게 됐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포교의 사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지사의 전법역량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지사는 본래 전법·호법·호국의 도량입니다. 면면한 역사속에 걸출한 용상(龍象)들이 배출돼 이 나라에 부처님 법을 전한 실례를 일일이 다 들수야 없지만 그러한 역사적 저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1세기 한국불교 포교의 핵심도량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과 최근 발족한 환경보호회의 구준한 활동, 그리고 성보박물관을 통한 문화재 사랑운동의 전개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법불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종교활동이 이뤄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구촌이 한 마당의 열린 세계이니 온 세계인이 함께 깨달음을 향한 구도행진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덕전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오묘한 부처님 법을 밝히는 학열(學熱)을 진지하게 태우고 세계의 새싹들이 모여 고사리손으로 합장하며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지난 30년의 고통들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30년 불사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건 어려우니까 그것이 일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집한칸을 고쳐 짓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긴시간을 두고 큰 가람을 새단장하는 일에야 어려움이란 표현이 당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땅문제였습니다. 절의 담장만 넘으면 논밭이 된 남의 땅이었으니까요. 한때 사방 40리가 절땅이었던 과거가 무색했지요. 경내에 들어선 논밭을 다시 사들이는 일은 실로 어려움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절이나 신도나 모두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에 시작한 일이어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의 얘기를 하나 들려주십시요.

▲국민학생들이 절로 수학여행을 오면 그 고사리손에 쌀을 한 보시기씩 가져왔었죠. 그 쌀을 받아 학생들 밥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것으로 인부들 밥을 지어주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꽤나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참 사부대중에 감사

—불사과정에 많은 문화재도 발굴한 것으로 압니다만.

▲중창불사를 진행하며 6~7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발굴되어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불사의 중창과 아울러 각 말사의 문화재를 점검하고 사지(寺誌)를 정비한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보박물관도 지었으니 직지사는 문화재 사랑의 실천도량으로도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이 중창불사는 직지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불교전체의 일이고 나라의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간 이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동참불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텐데요.

▲직지사 대중을 중심으로 펼쳐 온 이 불사에는 전국의 모든 불자가 참여했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참여도 있고 정신적 참여도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간절한 발원과 애틋한 합심이 이뤄낸 부처님 도량이니 모두가 이 불사를 인연하여 성불의 씨앗을 뿌렸다고 봅니다. 역사는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새시대를 여는 사부대중의 원력에 감응하는 부처님 가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직지사의 회향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두루 동참해 소중한 인연을 맺길 빕니다.

임연태 기자

"되찾은 옛 위용…불교의 내일 열 새 회상 기약"

문화재 사랑운동등 전개…환경보호회도 발족

나의 수행일기

동문성 〈속초 시장〉

'心卽佛' 되뇌이며 신심 북돋아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부도덕사회 정화" 확신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내가 일곱살되던 해인 1943년 쯤으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땅' '두고온 산하'인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다. 내 고향 용포벌에는 북쪽으로 동해바다를 향해 흘러 내려간 백말(白馬)모양을 닮은 모래산 백마산이란 산이 있다. 이 산의 머리부분에 동해바다를 향한 아담한 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절에 부모님을 따라간 일이 있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가진 첫 일이다.

내가 태어난 용포리동네에서 백마산을 바라보면 그 모래산은 영락없이 백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해방전 국민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기회가 주어지면 친구들과 드넓은 용포벌을 뛰놀면서 백마사에 찾아가는 일은 자주 있었고, 절을 찾으면 법당과 산신각에 들어가 절을 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같은 참배행위는 막연한 신앙생활이었다.

8·15해방이 되자 하루 아침에 일본글을 쫓아내고 한글을 배움으로서 어리둥절하던 나날이 계속되던 일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북한이 6·25전쟁을 한창 준비하던 1949년 여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조선역사 시간에 안모 역사 선생님이 느닷없이 백마사를 몰아부치면서 절간은 미신의 집단이며 놀고 먹는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쏘아 붙였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줄 몰랐던 때인데 1·4후퇴와 함께 월남한 이후에야 그 선생님의 말이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이요, 종교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혼자서 쓴 웃음을 지은 때도 있었다.

철이 들어서 알게된 일이지만 우리 어머님은, 우리집안은 선대로부터 절에 다니는 집안이었다고 우리형제들에게 말씀하셨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으셨다.

6·25의 참담한 전쟁속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땅과 전 재산을 버리고 월남한 우리집은 속초에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님께서는 정성을 들여 공양미를 마련하여 초파일과 백중에는 속초 인근의 보광사(普光寺)를 찾아 기도를 드렸었다. 이제는 타계하여 저 세상에 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불심이 대단히 깊었던 분이셨다.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뒤에는 아내가 어머님의 불심을 이어받아 지금은 보광사뿐만 아니라 낙산사, 신흥사등 매년 몇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하고 있다. 어머님과 아내의 신심에 비하면 나는 가끔 불교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막연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즉불'이라고 독백을 토하면서 스스로 불자임을 확인하고저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불자의 최선행조건은 부처님 앞에서 자기를 수행하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부처님을 접하지도 않고 '심즉불'만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절에 갈 수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본 생각만은 늘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소년시절일 때만 해도 부처님을 뵈려면 적어도 하루 몇 십리씩은 산행을 해야 절이 있었다. 부처님은 심산에 외로이 앉아서 기껏해야 하루 몇명의 불자를 대하기 일쑤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어난 인간들이 발달시킨 물질문명의 첨단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부처님도 산사(山寺)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떼지어 살고있는 시중(市中)에 자리를 잡고있다. 포교당·양로원·유치원·종합병원 등을 설치하면서 현대사회 가운데 우뚝서서 현대과학이 창출해 낸 물질문명의 역반응 현상들에 대해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 고준한 고독경에 안주하시던 옛날의 부처님이 아니고 혼탁·부도덕·비정상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대사회를 바르게 제도하시기 위해 시민사회속에 내려오신 것이 오늘날 부처님의 참모습인 것이다.

나는 지난 6·27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특히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의 많은 불자들이 나의 당선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른 신앙을 가진 친지나 후배들이 나의 당선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종교가 추구하는 공동선(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사람에 따라서 심한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는데 나는 이처럼 부질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들 불자들은 그런 것들을 초극하여 바른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가 세계화를 향해 정진하는 참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海東佛教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 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教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6기 佛教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워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5년 10월 1일 ~ 11월 13일

■ 개강일시 : 1995년 11월 1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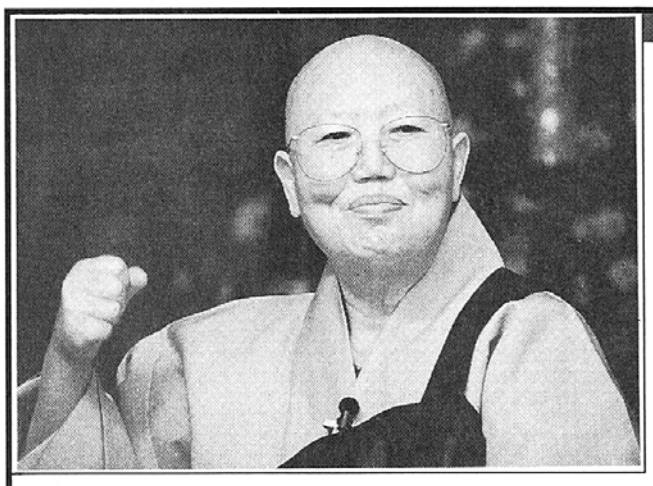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중앙승가대 발전기원

대행스님 부산대법회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

▶일시 : 불기 2539년 10월 8일(일) 오후 2시

▶장소 : KBS 부산홀(남천동)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부산지원(403-7077)

▶후원 :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지사, KBS부산방송총국, 부산일보, 국제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모시는 말씀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어서
온갖 것을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 또한
마음의 미혹함 때문이니
더욱 정진하여 자성을 밝힐 일입니다.

치열하게 성찰의 시간을 가질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는
옛 선사의 말씀처럼
우리 불자 모두는
자성을 밝혀

'부처와 중생'이
'예토와 정토'가
'나와 이웃'이
둘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 생명이 함께하는
'참 삶의 길'
'참 자유의 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인된 삶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행스님과 함께 하는
'만 생명의 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